

원저

馬王堆 出土 醫書 中 《脉法》에 關한 研究  
- 經脈과 脈診과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

서용원 · 윤종화 · 김갑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 Maek-beop, 脈法 〉 the oriental medicine scription  
from the tomb of Ma-wang-toe(馬王堆)

Yong-Won, Seo · Jong-Hwa, Yoon · Gap-Sung, Kim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 : A study on 〈Maek-beop〉 which is the first scription of pulse diagnosis method in history.

**Method** : A translation of contents in 〈Maek-beop〉 into modern concepts on the basis of researched books and the explanation of difficult characters and paragraphs to general concepts.

**Result** : The pulse diagnosis method by comparison, moxibustion method, venesection method, a treatment of an abscess and the succession of treatment in 〈Maek-beop〉 are delivered from 〈Sumen, 素問〉, 〈Lingchui, 靈樞〉.

**Conclusion** : A 〈Maek-beop〉 is the scription of the diagnosis of meridian and therapeutic method in 〈Zu bi shi yi mai jiu jing, 足臂十一脈灸經〉, 〈yin yang shi yi mai jiu jing, 陰陽十一脈灸經〉.

**Key words** : Maek-beop, Sumen, Lingchui, Zu bi shi yi mai jiu jing, yin yang shi yi mai jiu jing.

- 접수 : 2001년 10월 25일 · 수정 : 12월 21일 · 채택 : 2002년 1월 7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1과(Tel. 054-770-1257)  
E-mail : item0916 @ chollian.net

## I. 서론

1973년 湖南省 長沙 馬王堆에서 漢代의 古墳群 (B.C 168年 頃)의 發掘 중에 先秦, 秦 및 漢代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遺物과 竹簡 木簡 帛書 등에 記錄된 先秦의 多樣한 文獻들이 出土되었다<sup>1)</sup>.

出土書籍 중 醫學著作은 經脈에 關한 《足臂十一脈灸經》(이후 《足臂》로 칭함), 《陰陽十一脈灸經》(이후 《陰陽》으로 칭함), 診斷에 關한 《脈法》《陰陽脈死候》, 導引 및 氣功에 關한 《導引圖》, 《却穀食氣》, 藥物에 關한 《五十二病方》《養生方》《雜療方》, 性에 關한 談論의 《合陰陽》, 婦人科 書籍의 《胎產書》 등의 十四種이다<sup>2)</sup>.

한편 《足臂》《陰陽》《脈法》《陰陽脈死候》 및 《五十二病方》은 같은 帛書에 기록되어 있고, 《脈法》은 《足臂》《陰陽》의 뒤에 있고 《陰陽脈死候》의 앞에 있어 經脈의 診斷과 聯關이 있음을 推測할 수 있다<sup>3)</sup>.

經脈은 血管을 中心으로 發見되고 形成되어 “脈”字에는 經脈과 脈診의 概念이 混在되어 있다<sup>2),4)</sup>.

《脈法》의 “脈”은 《足臂》《陰陽》의 十一脈을 意味하고 導脈, 啓脈 및 相脈의 法則은 脈을 통한 疾病의 診斷, 治療의 方法이 包含되어 있다<sup>5),7)</sup>.

이에 論者는 導氣의 理論에 依據하여 灸, 刺絡으로 經脈의 病候를 治療하는 “導脈”, 癰腫이 膿을 形成했을 때에 砭石을 이용하여 血管(脈)을 찌르거나 膿血을 除去하여 治療하는 “啓脈”, 《素問·三部九候論》에서만 淵源이 있는 踝部彈診法과 脈象을 比較하여 診察하는 脈診法의 “相脈” 및 疾病治療의 先後를 論述하고 있는 《脈法》을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 II. 연구방법

《脈法》은 全文 13行의 400餘字로 構成되어 있고 二種類의 傳本이 있다. 1973년 馬王堆에서 發掘된 甲本과 1976년 張家山에서 出土된 乙本이 있으며 甲本은 脫字 및 毀損이 매우 甚하다. 乙本은 比較的 完整된 文字로 保存되어 있고 漢惠帝(B.C 194 - B.C 188)의 名諱인 “盈”字를 피하지 않아서 抄寫한 年代는 적게는 B.C 2세기 以前까지 遡及할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乙本을 基礎로 甲本으로 補完하고 修訂한 原文을 利用하였다.

1. 原文은 《馬王堆古醫書考釋<sup>5)</sup>》을 底本으로 하였다.
2. 解釋은 《馬王堆古醫書考釋<sup>5)</sup>》《馬王堆醫書考注<sup>6)</sup>》《馬王堆漢墓醫書校釋(壹)<sup>7)</sup>》을 參考하여 原文을 翻譯하고 現在의 意味와 相通하도록 解釋하였다.
3. 校注는 《馬王堆醫書考釋》《馬王堆醫書考注》《馬王堆漢墓醫書校釋(壹)》《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sup>8)</sup>》《黃帝內經素問校釋<sup>9)</sup>》《黃帝內經太素<sup>10)</sup>》을 聚合하여 原文의 意味를 쉽게 把握하도록 簡潔하게 하였다.

## III. 자료

(原文) 以<sup>1)</sup>脉<sup>2)</sup>法明<sup>3)</sup>教<sup>4)</sup>下<sup>5)</sup>. 脈亦<sup>6)</sup>聖<sup>8)</sup>人之所貴<sup>9)</sup>也

(解釋) 이 책은 脈法을 運用하는 知識을 弟子들에게 傳受시켜 診斷과 治療의 技術을 教育하는 書籍이다. 脈이 人體에 있어 중요한 意味를 가지기 때문에 學問과 道德이 넓고 많은 智慧를 가진 사람들도 脈의 가르침을 重要하게 생각했다.

(校注) 1) 以 - 뜻이 用과 같다. 《素問·經脈別論》“揆度以爲常也”을 《素問》의 王冰注에서 “以, 用也”하였다.

2) 脉 - 甲本에는 脈으로 되어 있다.

3) 明 - 明白, 明確의 뜻이다.

4) 教 - 教育의 뜻이다.

5) 下 - 學生, 生徒의 뜻이며, 밑에 있는 사람 즉 신하, 백성, 어린이, 후배를 指稱한다.

6) 脈亦 - 甲本과 같고 乙本에서는 “夫脈者” 적었다.

7) 亦 - 어조사다. 亦字는 本文句에서는 “也” “也卽”의 뜻이다.

8) 聖 - 古代에 聖人은 物理를 通達하여 學術과 道德이 高明한 사람을 指稱하였고, 《素問》에는 “聖人”의 字가 있다. 예로 《素問·上古天真論篇》 “夫上古聖人之教下也” 하여 方式이 本文과 서로 같으며, 《素問·四氣調神大論》 《素問·示從容論》 《素問·疏五過論》 《素問·方盛衰論》 등에 모두 “聖人”의 二字가 있으며 《脈法》과의 淵源關係의 痕迹이 있다.

9) 貴 - 重視, 尊重의 뜻이다. 《國語·晉語》에 “重貨而賤土”가 있는데 衛注하길 “貴重也” 하였고, 《廣雅·石門》에 “貴尊也” 하였다.

(原文) 氣也者<sup>1)</sup>, 利下而害上<sup>2)</sup>, 從暖而去清焉<sup>3)</sup>

(解釋) 氣는 아래로 下降하면 健康에 有益하고 위로 上衝하면 健康에 해롭다. 그리고 氣는 人體를 溫暖하게 하고 人體의 寒冷한 氣運을 除去한다.

(校注) 1) 氣也者 - “氣”字의 本來의 뜻은 物質의 氣體상태를 뜻한다. 古醫書의 氣는 人體의 內氣와 人體의 外氣로 구분되어 있다. 內氣系統은 內部の 機能常態(활동능력) 혹은 感覺傳導를 말한다. 本文 中の “氣”說明은 모두 體內的 氣를 指稱한 것이고 특히 脈氣의 轉移活動을 설명하였다.

2) 利下而害上 - 乙本과 같다. 甲本에는 “利”가 “到”로 되어있고 “害”가 없다. “利”字는 두 가지 意味가 있다. 첫째, 便利, 利益이다. 둘째, 養育을 의미한다. “下”字는 人體의 下半身을 모두 가리키는 말

이며 《素問·厥論》 “陽氣衰於下則爲寒厥. 陰氣衰於下則爲熱厥” 하여 《素問》의 王注에서는 “下는 足を 말함이다” 하였다.

“害”字는 두 가지 意味가 있다. 첫째 《韓非子·六反》 “害利之反” 하여 妨害를 뜻하는 “利”字의 反對語이며, 둘째, 《漢書·蕭何列傳》 “以文母害爲沛主吏椽” 하여 “害, 傷也”의 損傷의 意味가 있다.

“上”字는 여기서 頭部가 人體의 높은 處에 위치함을 말함일 뿐만 아니라 아래 文句에 “寒頭而暖足”의 “頭”字와 相應한다. “上”字는 古文 “上”에서 나왔다. 《說文·上部》 “上 高也. 此古文 ‘上’ 指事也” 하였다.

3) 從暖而去清焉 - 甲本에는 “從暖而去清”의 文句가 없으며, 乙本에는 “焉”字가 없으며, “暖”字와 “暖”은 古代에는 通用되었고, “暖”字는 따뜻하고 溫暖을 意味이며, 아래 文句의 “寒頭而暖足”의 “暖”字는 溫度를 增強시키는 意味이다. “從”字의 意味는 順從, 依支, 服從의 意味이다.

4) 去 - 除去의 意味이며, “清”字는 寒冷 서늘함을 의미한다. 《素問·五常政大論》 “審平之紀 ..... 其候清切” 하여 《素問》의 王冰注에서는 “清 大涼也” 하였으며, 《素問·至真要大論》 “則霧露清冥” 하여 “清 薄寒也” 하였다.

(原文) 故聖人<sup>1)</sup>, 寒<sup>2)</sup>頭<sup>3)</sup>而暖足<sup>4)</sup>. 治病者取<sup>5)</sup>有餘<sup>6)</sup>而益<sup>7)</sup>不足<sup>8)</sup>也.

(解釋) 그러므로 知慧가 높은 聖人이 말한 養生 規律에 根據하면 머리는 衣服위에 露出하여 추위에 견디어 내게 하여야 하고 다리는 下肢의 衣服안에 숨겨져 있게 하여 保溫해야 한다. 이것은 人體內氣의 生氣의 分包原則에 順應하는 것이다. 疾病治療에서도 活用하여 有餘한 實證에는 瀉法을 運用하고, 不足한 虛症에는 補法을 運用한다.

(校注) 1) 故聖人 - 甲本에는 “故”字가 없다. “聖”는 “聽”으로 되어 있다.

2) 寒 - 본 뜻은 寒冷하다는 뜻이며, 《素問·至眞要大論》“平以平涼” 하여 《素問》의 王氷은 “積涼爲寒” 했다.

3) 頭 - 頭面部. 《說文·首部》“頭 首也”, <急就篇> “頭 額 頰 頤 眉 目 耳” 하여 “頭者 首之總名也” 했다. 여기의 “頭” 字와 위의 글의 “書上” 의 “上” 字는 서로 對應된다.

4) 暖足 - 甲本, 乙本の “暖” 是 모두 “煖” 되어 있고 “따뜻하다” 의 뜻이며 廣義로는 더워진다(온도가 높아진다)가 있다. “足” 字는 下肢部를 指稱하는 말이며 위의 글 “利下” 의 “下” 字와 서로 對應된다.

5) 取 - ‘획득하다’ 의 뜻이다. “取” 字는 “驅” 字 (옛날에는 “馱”로 씀)의 假借이다. 《玉篇·馬部》“驅 逐遺也” 하였고, 《禮記·月令》“驅獸 毋害五穀” 하여 모두 驅逐의 뜻이다. 此 文句의 “有餘” 한 疾病(實證)에 대한 여기의 “取” 字는 治療에 있어 損滅하고 驅除하는 意味이며 《內經》 등의 醫書에는 瀉法에 해당한다.

6) 餘 - 乙本에는 “徐” 字로 잘못 적혀 있다.

7) 益 - 증가, 보충의 의미다. 此 文句의 “益” 字는 《內經》 등 醫書 중 補法에 해당된다.

8) 不足 - “足” 字의 뜻은 滿足을 의미하며, “不足” 의 뜻은 損傷됨이 있는 것으로 《內經》 등의 醫書에는 虛症에 해당한다.

(原文) 故氣上而不下<sup>1)</sup>, 則視有過之脈<sup>2)</sup>, 當還而灸之<sup>3)</sup>. 病甚<sup>4)</sup>, 而<sup>5)</sup>上於還二寸益爲一灸.

(解釋) 氣가 上行하여 逆氣가 되어 下降하지 않는 病理狀態에는 먼저 “어느 脈에 邪가 있어 증상이 나타났는가?” 診斷한다. 그리고 疾病에 罹患된 脈의 循行經路와 相反되는 部位에 (各 經脈의 流注에서 身體上部의 相反方向이 되는 四肢遠端處) 灸法 治療를 한다. 病勢가 沈重하여 一次治療로 下氣하지 않는 환자는 灸治療한 部位의 上方 二寸에 다시 灸治療를 한다.

(校注) 1) 故氣上而不下- 甲本에는 “故氣” 2字 가 없다.

2) 則視有過之脈- 甲本에는 “則視有” 3자가 없다. “過” 字는 과실, 착오를 意味하고, 此 文句의 “有過之脈” 은 疾病이 있는 經脈을 指칭한다. 《素問·脈要精微論》“故乃可診有過之脈” 하여 《素問》의 王氷注에서 “過 謂異于常候也” 하였다.

3) 當還而灸之- “當” 字는 甲本에 “會” 로 잘못 적혀 있으며, 그 意味는 “당연히 ... 해야 한다” 이다. “還” 字는 甲本과 乙本에 “環” 으로 되어 있다. “環” 과 “還” 은 음과 뜻이 相通되며 “還” 字는 되돌아오다 或 相反의 뜻이다. 또 “灸” 字는 甲本 乙本 모두 “久” 되어 있다.

4) 甚 - 極烈, 沈重의 뜻으로 《淮南子·修務訓》 “聖人之優勞百姓甚矣” 하여 “甚 重也” 했다.

5) 而 - 어조사이며 뜻은 “則” 과 같다.

(原文) 氣一上, 一下<sup>1)</sup>, 當郛與肘之脈而砭之<sup>2)</sup>.

(解釋) 氣가 上行하여 逆氣가 上行 혹 下降이 交代로 出現할 때 下肢膝關節窩部脈나 上肢肘窩部脈위에 砭石으로 瀉血治療를 한다.

(校注) 1) 氣一上, 一下 - 甲本에는 “一上一下” 4 字로 되어 있으며, 2 개의 “一” 字는 모두 부사로서 “혹 ... 혹 ...” 의 뜻이다..

2) 當郛與肘之脈而砭之 - 甲本에는 “當” 이 “出” 로 잘못되어 있다. “郛” 字는 甲本, 乙本에 모두 “月谷” 으로 되어 있다. 月谷이 잘못되어 郛이 되고 郛과 통하며 膝部로 되었다. “肘” 字는 乙本에서 잘못 “肘” 로 되어 있으며 형태가 잘못된 것이다.

“砭之” 是 甲本에는 없으며, 乙本에 “砭” 은 “石已” 으로 古字로 되어 있다. 《玉篇·石部》에 ‘石已’ 條에 “以石刺病也” 하였고, ‘砭’ 條에 “同上(石已)” 되어 있다. 仁和寺卷子本인 《太素·知鍼石》에 ‘砭’ 字는 모두 ‘石已’ 으로 되어 있다. (예 “制鍼石石已大小”)

(原文) 用砭<sup>1)</sup>啓脉<sup>2)</sup>者必如<sup>3)</sup>式<sup>4)</sup>; 癰腫有膿<sup>5)</sup>, 則稱<sup>6)</sup>其大小而爲之砭<sup>7)</sup>

(解釋) 이상의 治療方法은 砭石을 利用하여 血管을 찌서 治療하는 方法은 반드시 一定한 規則을 參照하여야 한다. 癰腫에 化膿이 있으면 제일 먼저 膿의 大小深淺의 정도를 살피 砭法治療의 施術의 範圍와 砭의 大小를 確定한다.

(校注) 1) 砭 - 乙本에는 '石巴' 으로 되어 '砭' 字를 다르게 쓰고 있고, 甲本에는 '石巴' 라 적어 石으로 巴으로 '砭' 字의 古字이다.

2) 啓脉 - 啓의 意味는 開啓이다. 此 文句의 '啓' 字의 뜻은 切開, 割破의 意味이다. 外科 手術의 “開刀”이며 “開”로도 稱한다. “脈” 字는 血管을 指稱하고 “啓脈”은 혈관을 찌서 治療하는 方法을 말한다.

3) 如 - 따르다, 본보기의 뜻이다.

4) 式 - 법칙, 규칙이다.

5) 癰腫有膿 - 甲本에 “癰”이 “壅”으로 되어 있으며, 癰과 壅는 上古音이 모두 同音이라 假借한다. “腫”자는 甲本 乙本에 모두 “種”으로 되어 있다.

6) 則稱 - 乙本에 “則”자는 없다. “稱” 字는 度量 權衡의 뜻이다.

7) 而爲之砭 - 甲本에 “爲” “貶” 2자가 없다.

(原文) 砭有四害<sup>1)</sup>. 一曰<sup>2)</sup>: 膿深而<sup>3)</sup>砭淺 謂之<sup>5)</sup>不逮<sup>6)</sup>

(解釋) 砭石으로 血絡을 찌서 癰腫을 治療할 때 是 4가지 禁忌가 있다. 첫째, 膿腫의 부위가 매우 깊은 때에 砭石으로 찌는 부위에 淺部에 施術하면 病巢를 除去하지 못한다. 이것을 不及이라 부른다.

(校注) 1) 砭有四害 - 甲本에 “砭”에서 “害” 字까지 설명되어 있다. 害의 뜻은 禁忌이다.

2) 一曰 - 乙本과 같다. 甲本엔 없다.

3) 而 - 甲本에 없다.

4) 淺 - 甲本에 “鞮”으로 되어 있다. 淺과 鞮는 上古의 音으로 假借한다.

5) 謂之 - 乙本에는 “謂” 가 “胃” 되어 있다. 謂

와 胃는 假借한다. 甲本에는 “之” 가 잘못되어 “上” 字로 되어 있다.

6) 不逮 - 逮은 미치다(及)란 뜻이다. 《說文·辵部》에 “逮 迨也” 하여 不逮은 不及이다.

(原文) 二曰<sup>1)</sup>: 膿淺而砭深, 謂之太<sup>2)</sup>過<sup>3)</sup>

(解釋) 둘째, 膿腫이 淺部에 있고 砭刺를 深部로 깊게 하면 深部の 正常組織까지 損傷을 주는 것을 太過라고 부른다.

(校注) 1) 二曰 - 乙本과 같고 甲本엔 없다.

2) 太 - 甲本에는 없고, 乙本에는 “泰” 되어 있다. 古文에는 相通한다.

3) 過 - 超過 逾越 太過를 意味한다. 《素問·經脈別論》“一陽之過也” 하여 《素問》의 王冰注에서 “過 謂太過也” 하였고, 《素問·天元紀大論》“各有太過 不及也” 하여 “太過 有餘也” 하였다.

(原文) 三曰<sup>1)</sup>: 膿大<sup>2)</sup>而砭小, 謂之斂, 斂者惡<sup>4)</sup>不畢<sup>5)</sup>.

(解釋) 셋째 膿腫의 부위가 크고 砭刺하는 구역이 작은 것을 “斂” 이라 하고, 收斂의 結果는 더러운 病膿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校注) 1) 三曰 - 乙本과 같고 甲本에 없다.

2) 膿大 - “大” 字는 뒤에 “畢” 字로 되고, 甲本에는 완전히 없다.

3) 斂 - 원래 澁으로 되어 있고 “스며들어 전염하다” 의 뜻이며, 此 文句의 病機와는 다르다. 斂과 澁은 上古音이 모두 淡部韻이며 韻이 같아 假借한다. “斂” 字는 《說文·支部》에 “斂 收也” 되어 있으며 收斂 約束 緊縮을 意味가 있다. 다음 문구의 “泛” 字와 서로 對應한다.

4) 惡 - 惡의 뜻은 汚穢하다는 말이다.

5) 畢 - 결속, 完결의 의미이며, 不畢이면 不盡이라 하였다.

(原文) 四曰<sup>1)</sup>: 膿<sup>2)</sup>小而砭大 謂之泛<sup>3)</sup>. 泛者 傷良肉<sup>4)</sup>

也.

(解釋) 네째, 膿腫의 부위가 작는데 砭刺하는 범위를 크게하면 膿腫周圍의 正常組織까지 破壞된다. 이것을 泛濫이라 한다. 泛濫의 結果는 健康한 肌肉組織까지 損傷된다.

(校注) 1) 四曰 - 乙本과 같다. 甲本엔 없다.

2) 膿 - 甲本엔 없다.

3) 泛 - 泛(汎, 汎과 같음) 字는 《說文·水部》에 “泛 濫也” 하여 汎濫하여 물이 넘쳐 흐르는 모양을 뜻한다.

4) 傷良肉 - “食”은 “蝕”의 假字이며 假借한다. “蝕”자의 意味는 侵蝕, 歎息의 意味이며 古籍중에는 大部分 “食” 字로 대신 쓰고 있다. “食肉”과 “傷肉”은 같은 의미다.

(原文) 膿多而深者<sup>1)</sup>, 上黑而大<sup>2)</sup>. 膿少而深者<sup>3)</sup>, 上黑而少. 膿多而淺者, 上白而大. 膿少而淺者, 上白而少<sup>4)</sup>. 此不可不察也<sup>5)</sup>.

(解釋) 膿液의 量이 많고 人體의 깊숙히 位置해 있으면 외부의 모양은 대부분 黑色을 나타내고 病變의 面積도 크다. 膿液의 量이 적고 人體의 깊숙히 位置해 있으면 외부의 모양은 대부분 白色을 나타내고 病變의 面積은 작다. 膿液의 量이 많고 人體의 얕은 位置에 있으면 膿瘍 部位의 외부의 모양은 대부분 白色이 나타나고 病變의 面積은 크다. 膿液의 量이 적고 人體의 淺層에 位置해 있으면 膿瘍 部位의 外部의 모양은 白色이 나타나고 病變의 面積은 작다. 이상은 膿腫의 診察에 注意하여 分別하여야 한다.

(校注) 1) 膿多而深者 - 甲本에는 “多而深者”가 없다.

2) 上黑而大 - 甲本에는 “上黑”2자가 없다. “上”자는 身體表面을 指稱한다. “膿小而深者”에서 “上白而大”까지 甲本에선 없다.

3) 膿少而深者 - 甲本에는 “而”와 “者”가 없고

“少”가 “小”로 되어 있다. “少”와 “小”는 假借한다.

4) 上黑而少 - 甲本에 전부 없다.

5) 此不可不察也 - 甲本에 “此不可不” 4 字가 없다. “察” 字는 辨別의 뜻이다.

(原文) 有膿者 不可灸<sup>1)</sup>也.

(解釋) 癰膿이 이미 化膿되면 灸治療는 하지 않는다.

(校注) 1) 可灸 - 甲本에는 없다. “灸”는 乙本에는 “久”로 되어 있어 假借로 통한다.

(原文) 相脈之道<sup>1)</sup>, 左手上去踝五寸而按之<sup>2)</sup>, 右手直踝而探之<sup>3)</sup>.

(解釋) 진찰하려는 脈象의 部位와 方法 : 의사의 왼손 손가락을 환자의 足內踝上 五寸部位 동맥이 뛰는 곳에 놓아 切脈하고, 동시에 오른손 손가락을 환자의 足內踝 바로 위의 動脈처를 짚어서 두 곳의 脈象의 구별을 얻어 對照하는 方式으로 한다.

(校注) 1) 相脈之道 - 乙本과 같다. 甲本에는 완전히 없다.

“相” 字의 意味는 본다 살핀다 선택의 뜻이며, 《素問·氣交變大論》“是謂臨視省下之時與德也” 하여 《素問》의 王冰注에서 “省 謂省察” 하였고 診察 診斷의 意味로 擴大解釋할 수 있으며 《傷寒雜病論·自序》“省疾問病 務在口合” 하였다. “相” 과 “省”은 같은 뿌리의 글자이며, 此 文句의 “相”은 本 字가 “省”으로 假借해서 相이 되었다는 설명은 참고할 만하다.

“道” 字의 本來의 意味는 道路이며 넓은 意味로 方法이다. 《易經·繫詞上》“道義之門” 하여 “道 謂 開通也” 하였다.

2) 左手上去踝五寸而按之 - 甲本帛書에 있는 이 문장 위에서 세로로 찢어져서 두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而” 字 이상은 모두 없어지고 그 다음 字 數는 정확하지 않다. 乙本에 있는 “左” 字 以下

는 약 5, 6 字가 缺損되었다. 《黃帝內經太素·卷十四》를 根據로 “診候之一”에 “手上去過五寸”의 6 字를 더해서 넣었다.(?) 또 乙本에는 다시 “而”자가 缺損되어 있으며 여기는 甲本을 根據로 《太素》와 合하였다.

“按”字는 《太素》와 같다. 甲本 乙本 모두 “案”으로 되어 있는데, 按과 案은 上古音으로 假借한다. “按”字의 意味는 첫째, 《素問·氣厥論》“按腹不堅”의 “어루만지다”이며, 둘째, 《靈樞·論疾診尺》“按其手足上 窅而不起者 風水 浮脹也”, 《靈樞·官鍼》“按絕其脈乃刺之”의 손으로 脈을 짚어 病을 보는 것과 신체 어떤 部位를 눌러보는 것을 말한다. 《脈法》에서의 “按”字는 切脈한다는 意味다.

3) 右手直蹠而探之 - 乙本과 같다. 甲本에는 完 전히 없다. 《太素》“直”은 “當”으로 되어 있다. 直과 當 2자는 그 뜻이 서로 같다. “直”字는 여기서 치우침이 없고 굽어지지 않은 직선을 의미한다.

蹠(huai 懷)는 《說文·足部》“蹠 足蹠也” 하여 蹠骨 즉 上下肢에 있는 手足腕關節 위의 左右 高骨을 말한다. 足之蹠는 脛骨下端的 隆起部는 內蹠와 腓骨下端的 隆起部는 外蹠로 나누어진다. 또 古籍 중에는 “蹠”字는 또한 上肢手腕部位의 手蹠로도 쓰인다. (手로 부터 나온 “指”자도 古醫籍 중에 手指와 足趾를 겸하는 것과 같다) 《靈樞·經脈》에 “小腸手太陽之脈 …… 起於小指之端 循手外側上腕 出蹠中 ……”, 《醫宗金鑒·刺灸心法要訣》“(手腕)外側之骨 名曰高骨 …… 亦名蹠骨” 모두 그 예이다. 手肢側에 있는 手蹠는 尺骨下端的 隆起部가 되며, 拇指측은 橈骨下端的 隆起部가 된다. 이상 足蹠와 手蹠를 총괄하면 인체 좌, 우 각 4개의 蹠骨이 있는데, 《脈法》에 기록된 蹠字는 구체적으로 分別되지는 않았고 오직 敦煌에서 출토된 殘卷 중에 《素問·三部九候論》에 “足內蹠”의 三字가 있다.

“探”字는 원래 簞이며 假借해서 擗로 쓰이기도 한다. 擗는 探의 古語로 쓰임새는 다르며, 음과 의미

는 모두 같고 古文學者는 대부분 이 2 字를 同源關係로 본다. “探”字는 ‘摸索하다 試探하다. 探入 或 探求하다’의 意味이다.

(原文) 他脈盈<sup>1)</sup>, 此獨虛, 則主病<sup>2)</sup>. 他脈滑<sup>3)</sup>, 他獨澹, 則主病<sup>4)</sup>. 他脈靜<sup>5)</sup>, 此獨動, 則主病<sup>6)</sup>.

(解釋) 예를 들어 오른손가락 아래에서 살피지는 脈象이 充實滿盈의 상태를 띄고, 왼손가락 아래에서 살피지는 脈象이 虛弱無力한 상태를 나타내면 피검사가 질병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손가락 아래에서 살피지는 脈象이 滑動流利의 상태를 띄지만 왼손가락 아래에서 살피지는 脈象이 滯澹不暢한 상태를 나타내면 피검사가 질병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손가락 아래에서 살피지는 脈象이 平靜和緩의 상태를 띄지만 왼손가락 아래에서 살피지는 脈象이 搏動不寧한 상태를 나타내면 피검사가 질병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校注) 1) 他脈盈 - 甲本에는 없다. 乙本에 “他”는 “它”로 되어 있다. 它是 假字이며, 他와 它是 上古音으로 同音이며 假借한다. 古籍 중에는 대부분 빌려쓰고 있다.

2) 此獨虛則主病 - 甲本에 “此”字가 없다. “此”는 “此脈”을 지칭하고 “他脈”과 대응되는 말이다. “虛”字와 “實”字는 人體 抗病 能力의 強弱을 나타내는 相對指標로서의 意味이며 《素問·論熱病論》에 “邪之所湊 其氣必虛”, 《素問·通評虛實論》에 “邪氣盛則實 正氣奪則虛”, 《素問·玉機真藏論》에 “虛 謂眞氣不足也”, 《素問·調經論》에 “虛者 聾辟氣不足”, “有者爲實 無者爲虛” 하였다.

3) 他脈滑 - 甲本에 “滑”은 “泊”으로 되어 있으며 “泊”과 “拍”은 형태가 가까워서 바꾸어 쓴다. “滑”字의 의미는 매끄럽다이며, 《說文·水部》에 “滑 利也”라 하였고, 《素問·脈要精微論》에서 滑脈의 脈象을 “滑者 陽氣有餘也” 하여 《素問》의 王

氷注에서 “陽有餘則氣多 故脈滑也” 하였다. (林億이 校注하길 “詳 ‘氣’ 多 疑誤. 當時 ‘血多’ 也”)

4) 此獨瀯 則主病 - 甲本에는 “瀯”과 “病” 字가 없다. 乙本에 瀯은 ?로 되어 있다. “瀯”과 “?”는 假借한다. 瀯자의 의미는 滑의 반대어인 즉 滯瀯이다. 《玉篇·水部》에 “瀯 不滑也”, 《素問·脈要精微論》에 滑脈의 脈象을 “滑者 陽氣有餘也” 하여 《素問》의 王氷注에서 “陽有餘則血少 故脈瀯” 하였다.

5) 他脈靜 - 甲本에 “靜” 字는 없다. “靜” 字의 意味는 安定 安寧이다. 《素問·生氣通天論》 “靜則多言” 하여 《素問》의 王氷注에 “靜 謂安靜” 하였고, “靜”은 《內經》의 脈法 에서는 和와 和緩의 뜻이 있다. 예로 《靈樞·終始》 “穀氣來也 徐而和” 하였다.

6) 此獨動 則主病 - 甲本에 완전히 없다. 乙本에 “主” 는 “生” 으로 되어 있다. “動” 字는 動搖 躁動 不安의 意味이며, 《素問·五常政大論》 “其動濡積并穢” 하여 《素問》의 王氷注에서 “動 謂變動”, 《素問·六元正紀大論》 “故風勝則動” 하여 《素問》의 王氷注에서 “動 不寧也”, 《素問·五運行大論》 “其變動” 하여 《素問》의 王氷注에서 “動 反靜也” 하여 《內經》의 脈法에서 “動”은 疾病이 있거나 促迫한 境遇를 意味하며, 《靈樞·經脈》 “脉卒然而動者, 皆邪氣居之”, 《靈樞·終始》 “邪氣來也 緊而疾” 하였다.

(原文) 夫脈固有動者<sup>1)</sup>, 軒之少陰<sup>2)</sup>, 臂之泰陰, 少陰<sup>3)</sup>, 是主動<sup>4)</sup>, 疾則病<sup>5)</sup>, 此所以論有過之脈也<sup>6)</sup> 其餘謹視當脈之過<sup>7)</sup>.

(解釋) 人體의 脈은 體表上에서 恒常 搏動을 느낄 수 있는 部位가 3곳이 있다. 즉 足(軒)少陰脈, 臂(手)太陰脈, 臂(手)少陰脈이다. 그것들은 모두 正常의 生理 常態에서 日常으로 維持되는 搏動이다. 예를 들어 搏動數가 增加하여 正常限度를 넘으면 疾病이 發生한다. 이상 세 맥을 中心으로 모든 診斷 部位의 疾病有無를 確定하게 되고, 이외의 全身의

11개 맥의 각각 主 病候를 根據로 한 然後에 判斷한다.

(校注) 1) 夫脈固有動者 - 甲本에는 완전히 없다. “夫”자는 문장 앞에서 조사가 된다. “脈” 은 여기서 전신 11개 脈의 총칭으로 본다. “固” 字는 本來 必然의 의미이며, “動” 字는 脈搏의 拍動한 상태를 말한다.

2) 軒之少陰 - 甲本에 “軒”이 없다. 軒字의 의미는 “脛”과 같으며 小腿를 가리키거나 혹은 小腿骨을 말하며, “軒”이 《脈法》에서는 “足” 字를 代用하고 넓게는 下肢 모든 脈을 統括하며, 《足臂十一脈灸經》과 《內經》 등에서 “臂” 혹은 “手” 字는 上肢의 諸脈과 넓게 통하는 意味가 된다.

3) 臂之泰陰, 少陰 - 甲本과 같다. 乙本은 “泰” 는 “鉅”라 되어 있다. 鉅와 太자는 같은 뜻으로 “泰” 字와 서로 通한다. 전체로 手太陰, 手少陰의 두 맥을 가리킨다.

4) 是主動 - 乙本과 같다. 甲本은 “是” 는 “氏” 되어 있다. 또 “動” 字는 없다. “是”와 “氏” 는 上古 音으로 假借한다.

5) 疾則病 - 甲本에는 “疾”과 “病” 2 字가 없다. “疾” 字는 疾病, 疼痛과 急速의 意味이며, 《禮記·月令》 “征鳥萬疾” 하여 “疾 捷速也” 하였다. 本 條文의 여기 “疾” 字는 脈의 搏動이 迅速하여 빨라지는 것 을 뜻한다.

6) 此所以論有過之脈也 - 甲本에 “所以論有過之脈也” 8 字가 없다. “也” 는 乙本에 “?” 으로 옛 글 자로 적혀 있다.

“過” 字는 本來의 意味는 過失, 錯誤이며, 此 文 句에서는 病患, 疾病을 指稱한다. 《素問·示從容論》 “子別試通五臟之過” 하여 《素問》의 王氷注에서 “過 謂過失”, 《素問·脈要精微論》 “故乃可診有過之脈” 하여 《素問》의 王氷注에서 “過 謂異于常候也” 하였다.

7) 其餘謹視當脈之過 - 甲本에는 전부 없다.



“謹”字은 여기에 부사이고 敬語이다. “視”字은 觀察의 意味이며, “當”字의 相當, 相應의 意味이며, 此文句의 “當過之脈”은 全身 十一脈이 主하는 病候를 指稱한다. 各 脈의 具體적인 病候와 名稱은 《足臂<sup>11)</sup>》과 《陰陽<sup>12)</sup>》을 參照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原文) 治病之法<sup>1)</sup>; 複先發<sup>2)</sup>者而治之. 數脈俱發病, 則擇<sup>3)</sup>其甚<sup>4)</sup>者, 而先治之.

(解釋) 疾病治療原則은 ; 제일 먼저 出現한 症狀을 根據로 治療를 한다. 예를 들어 몇개의 脈에 이상 脈象이 동시에 出現하면 그 중 증상이 가장 重한 脈을 選擇하여 먼저 治療한다.

(校註) 1) 治病之法 - “治病” 2 字로 부터 이하 “先治之”까지 合하여 25字는 甲本에 전부 없고, 지금은 乙本을 根據로 했다. “法”字의 意味는 法則이다.

2) 發 - 發生 發作을 意味하며, 《素問·氣交變大論》에 “其嘗即發也”라 하여 王은 “發 謂起也”라 하였다.

3) 擇 - 選擇의 意味이며, 《說文·手部》에 “擇 揀擇也”라 하였다.

4) 甚 - 極烈 沈重의 意味이며, 《廣雅·釋言》에 “甚 劇也”라 하였다.

(原文) 脈之玄<sup>1)</sup>, 書而熟<sup>2)</sup>學之. 季<sup>3)</sup>子忠謹, 學×××見於爲人×××××言不可不察也.

(解釋) 脈에 關한 知識은 深奧하여 熟練되게 學習해야 한다. 처음 學文하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謹”字부터 아래 “言”字까지 약 十六字 정도 缺文되고 中間에 殘說이 끊어져서 계속 文장을 이룰 수 없어 解釋을 잠시 멈춘다.) 醫學을 공부하는 사람은 眞實을 相對的으로 認識하여 깊게 學文을 익혀야 하고 《脈法》이 가르치고 引導하는 意味를 等閒時하지 말고 배우고 익히기를 當

付한다

(校註) 1) 脈之玄 - “脈之”부터 아래로 “不察”까지 모두 약 23자가 乙本에 완전히 없다. 여기는 甲本을 근거했다. “玄”자는 甲本에 원래 “縣”으로 되어 있다. 玄과 縣은 上古音으로 縣은 玄을 假借하며, “玄”字의 意味는 深奧이다.

2) 熟 - 숙련하다, 자세히 살피다 의 意味가 있다.

3) 季 - 幼小 幼子 少小를 意味하며, 《說文·子部》“季 少稱也”하였다.

4) 謹 - 謹慎을 意味하며, 《說文·言部》“謹 慎也”하였다.

## IV. 本론 및 고찰

### 1. 《脈法》과 《內經》에서 氣의 概念

#### 1) 氣의 概念

《脈法》에서의 “氣”는 《內經》의 陽氣와 陰氣의 두 가지에서 매우 많은 名稱과 種類에 이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靈樞·刺節眞邪論》에서는 “眞氣” “正氣” “宗氣”, 《素問·離合眞邪論》에서는 “經氣”, 《靈樞·五味》에서는 “大氣”, 《靈樞·衛氣》에서는 “營氣” “衛氣”, 《靈樞·口問》에서는 “胃氣”라 하였다. 外氣는 外界에서 病에 이르는 素因을 말하며 《素問·陰陽應象大論》“天氣” “地氣” “濕氣”하였고, 《素問·舉痛論》“寒氣”하였고, 《素問·天元紀大論》“氣, 謂風, 熱, 濕, 燥, 寒”하였다.

《內經》時代에는 이미 生理, 病因, 病理, 解剖的인 智識이 結合되어 다양한 氣의 概念이 形成되었으며 《脈法》의 “氣”에 對한 概念의 認識은 마땅히 《內經》以前의 古代理論으로 볼 수 있으며 《脈法》과 《內經》은 ‘氣’理論으로 보아도 相互間에는 淵源關係가 있다고 思料된다.

#### 2) 氣의 作用

《內經》의 “氣” 理論이 《脈法》에서 根據한 이  
유를 살펴보면, 첫째 인체의 頭面은 諸陽脈이 모이  
고 陽氣가 充만한 곳으로 《靈樞·邪氣藏府病形》“諸  
陽之會皆在于面” 하였고, 《難經·四十七難》“人頭者  
諸陽之會也” 하였다. 동시에 인체의 氣(陽氣)는 性  
이 溫熱하려는 특징이 있으므로 《靈樞·論疾診  
尺》“陰主寒, 陽主熱” 하였고, 頭面部를 包含하는 人  
體의 上半部는 陽에 속하며 陽氣가 身體上部로 향  
하여 過亢하면 中風, 頭風眩, 癱瘓, 昏厥 …… 등의  
病理狀態가 出現하는 “害上”의 結果가 나타나고  
《素問·生氣通天論》“陽氣者 若天與日 先其所則折  
壽而不彰” 하였다.

둘째, 人體의 氣(陽氣)는 “利下” 작용이 있으며  
“害上”의 病理機轉과는 相反되는 작용이며, 下肢를  
포함하는 人體의 下半身은 一般적으로 陰에 屬하므로  
《靈樞·終始》“病在上者 陽也 病在下者 陰也” 하  
였고, 《素問·厥論》“陽脈集於足下 而聚於足心” 이  
라 하여 陰寒이 太過하여 질병에 이르게 되면 氣  
의 “利下”의 作用으로 身體下部에 平常時보다 많은  
陽氣가 공급된다.

셋째 인체의 氣(陽氣)는 “從暖 去清”의 작용은  
陽氣自體는 모두 溫熱과 上向하려는 性質을 가지고  
있다.

## 2. “取有餘”와 “益不足”의 治療原則

《脈法》에서의 “取有餘”와 “益不足”의 治療原則  
에 관하여 《內經》《難經》등에서 繼承 發展시킨  
根據를 살펴보면 《靈樞·寒熱病》《靈樞·熱病》“損  
有餘 益不足” 하였고, 《素問·骨空論》“不足則補 有  
餘則瀉” 하였고, 《素問·瘧論》《靈樞·根結》“不足  
者補之 有餘者瀉之” 하였다. 《金匱要略·臟腑經絡先  
後病脈》에서 “經曰” 하여 “補不足 損有餘” 하였다.

또, 《靈樞·九鍼十二原》“損不足 而益有餘 是謂甚  
病 病益甚” 하였고, 《難經·十二難》“是謂實實 虛虛  
損不足 益有餘. 如此死者 醫殺之耳” 등의 내용은

《脈法》의 治療原則에 대하여 進一步하여 말하고  
있는데 “取有餘益不足”의 原則에 어긋나게 相反된  
방법을 쓰거나 並行治療를 하면 반드시 病勢가 심  
해져 惡化된다. 그리고 《難經·八十一難》《金匱要  
略》의 “虛虛實實”을 引用한 “經曰”文 또한 넓게  
는 이것에 關해 쓴 글이다.

또한 어떤 病症이 “有餘”와 “不足”에 속하는가?  
《素問·調經論》에 五個의 “有餘”혹 “不足”의 病  
症과 症狀이 比較的 詳細히 記錄되어 있다.

## 3. 氣의 害上에 對한 治療法

《脈法》에는 氣가 “害上”하여 나타나는 特性을  
설명하고 있으며 逆氣가 上衝되어 停滯된 것이 내  
려가지 못하여서 發生하는 질병을 診斷하고 治療하  
는 方法이 記載되어 있다.

《脈法》의 “氣 一上 一下”의 ‘一上’는 逆氣上  
衝하는 것을 意味하고, “一下”는 逆氣가 下降하는  
것을 意味한다.

‘一上’는 逆氣上衝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素  
問·方盛衰論》“氣上衝頭”《素問·論疾診尺》“氣上  
而不下 頭痛癱疾” 하였고, 《金匱要略·痙濕喝病脈  
證》“氣上衝胸” 하였고, 《素問·評熱病論》“氣上迫  
肺心”, 《靈樞·論勇》“氣上逆滿於胸中”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根據해 보면 氣가 逆上하여 올라  
가면 인체의 古人들은 上部機關에 증대한 障害가  
일어나는 것을 認識하였다.

그리고 《足臂》, 《素問》, 《靈樞》등에 인체의 十  
一, 十二個의 經脈의 各各 疾病의 證候를 記載되어  
있으며 《脈法》에서 “有過之脈”은 逆氣가 上衝할  
때의 증상이 어느 脈에 屬하는 지를 찾으려면 어느  
脈이 病的인 脈인지를 確定할 수 있는 方法을 《陰  
陽》의 ‘是僮則病’은 各 經脈에 屬하는 動脈診斷法  
을 應用하였고 《難經·一難》에서 “十二經皆有動脈”  
하였고, 《脈法》의 比較脈診의 知識이 蓄積되어 十  
二經脈의 各各의 動脈處의 脈象에 따른 症狀을 《素

問·大奇論》과 《素問·邪氣藏府病形》에 詳細히 描寫되어 있다.

逆氣의 治療法으로 灸治法을 利用하고 있으며 病脈의 體表에 刺戟하는 部位는 身體의 上方과 완전히 반대되는 病脈의 終端이 되며, 《脈法》의 治療의 原則인 “取有餘而益不足”의 確定的 原理의 根據가 된다. 重한 病에 對해선 進一步하여 刺戟하는 部位도 增加된 곳을 선택하고 刺戟量도 增加하였다.

“一下”는 逆氣가 下降하는 것을 말하며 一般的인 경우에서 逆氣下降하면 病因이 除去되어 疾病이 治療되며, 이의 治療過程은 鍼石, 藥飴로서 治療한 結果로서 《靈樞·九鍼十二原》《靈樞·熱病》《靈樞·刺節眞邪》《靈樞·脈論》등에 “氣下乃止” 하였다.

그러나 此 文句의 間歇的 症狀의 “一下”와는 완전히 다르며, 四肢膝部和 肘部를 刺戟部位로 삼아 厥逆의 疾病治療를 말하고 있으며, 《靈樞·刺節眞邪論》“治厥者 必先熨調和其經 掌與腋 肘與脚 項與脊 以調之 火氣已通 血脈乃行. ....” 하여 《黃帝內經》중에도 계속 使用되었고 또 治療手段이 改變되어 熨法이 되었고 《脈法》의 시대에는 治療工具 - 砭石(或 “鑿石”)을 利用하여 “脈”을 治療方法으로 皮下靜脈血管을 治療하는 瀉血療法으로 이용되었다.

#### 4. 《脈法》의 癰腫治療

1) 《脈法》의 砭法과 《靈樞·官針》의 針法의 比較

《脈法》의 砭石으로 癰腫을 治療하는 原則과 方法을 論한 것으로 砭石으로 “啓脈”하는 治療法을 運用하고 있다. 이는 古代 醫家들이 癰腫의 發病과 治療는 모두 脈과 直接的인 連繫가 있는 것으로 認識하였다는 說明이다.

砭石으로 血絡을 찌는 원칙은 《素問·長刺節論》“治癰腫者 刺癰上 視癰小大深淺刺 刺大者多血 小者深之 必端內鍼爲故止” 하여 《脈法》의 條文과 類似

한 記錄이 있다. 이는 《脈法》의 治療原理가 延變된 根據로 볼 수 있다.

《脈法》에는 癰腫部位의 大小深淺과 砭石을 利用하여 治療하는 四種類의 禁忌를 提示하고 있다. 이는 《內經》에서 針으로 癰腫을 治療하는 理論과 一致하며 砭石을 代身해서 “九鍼”으로 바뀌었다. 즉 《靈樞·官針》에 “九鍼之宜 各有所爲 長短大小 各有所施也. 不得其用 病不能移”라 하였다.

癰腫의 大小深淺과 砭石을 利用하는 四種類의 禁忌에서 첫째 “膿深砭淺”는 《靈樞·官鍼》“病深 鍼淺 病氣不得泄 支爲大膿”하였고, 許<sup>5)</sup>는 “《外科證治全書·卷五·鍼法》“肉厚 鍼淺 則毒膿不出 反益其癰”하여 砭石을 잘못 쓰면 不良한 結果를 招來한다” 하였다. 둘째 “膿大砭小”는 《靈樞·官鍼》“病大 鍼小 氣不泄瀉 亦復爲敗”하였고, 셋째 “膿小砭大”는 《靈樞·官鍼》“病小 鍼大 氣泄太甚 疾必爲害” 하였다.

또 《脈法》에는 癰腫의 化膿程度를 鑑別하는 方法을 論述하고 있다. 癰腫의 外形적 色澤明暗에 대한 比較(黑과 白)는 化膿된 부위의 深淺에 대한 指標가 되며, 癰腫의 面積大小는 化膿된 病變의 범위에 대한 진단방법은 臨床的으로 簡便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方法이며 明確하고 客觀的 標準이 된다.

#### 2) 灸法의 禁忌

《脈法》의 “有膿者 不可灸也”는 癰腫이 化膿된 후에는 灸法을 禁忌한다는 規則을 확립하였는데 《靈樞·玉版》“其已成膿血者 其唯砭石 鍍針之所取也.” 하였다, 《素問·病能論》“夫癰氣之患者 宜以針 開除去之. 夫氣盛血聚者 宜石而瀉之” 하였다, 《小品方》“是以治癰疽方有灸法者 治其始. 其始中寒未成熟(熱)之時也”(《醫心方》卷十五治癰疽未膿方第二 引文) 하였다, 《集驗方》“凡癰疽之疾 未見膿宜療之 當上灸三百壯.....” 하였다, 《聖濟總錄》卷一百二十八

“辨癰疽宜灸法不宜灸法” “凡癰疽 發背初生, .....須當上灸之” “癰癩成膿之後亦令灸之 皆能害人” 하였다<sup>6)</sup>. 이는 《脈法》의 禁灸理論의 繼承하여 發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後代에는 癰腫의 初期에 患處는 紅, 腫, 脹, 痛할 때에는 化膿되지 않았으면 灸法을 사용할 수 있으며, 癰腫의 化膿期에 膿汁이 이미 形成되어 膿腫이 충분히 성숙되면 刀, 針, 砭石 등의 工具로 져서 膿液을 除去하였고 灸法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6)</sup>. 《脈法》의 “癰腫有膿則稱其小而砭之”의 治療法과는 相反되지 않는다.

### 5. 《脈法》과 《素問·三部九候論》의 脈診

#### 1) 《脈法》의 脈診의 方法

彭<sup>14)</sup>은 “《脈法》의 “相脈之道”의 意味는 正確히 알 수는 없고 세 가지의 方法으로 類推해 볼 수 있다.” 하였다.

첫째 《脈法》 “相脈之道, 左手上去踝五寸而按之, 右手直蹠而探之”의 條文의 脈診의 部位와 方法은 文字가 缺어졌다 하더라도 後世에 出土된 傳本系統이 다른 《素問》, 《黃帝內經太素》, 《鍼灸甲乙經》, 敦煌에서 출토된 《內經》의 殘文을 包括하여 文字를 判別하고 相互間에 약간의 文字를 出入하고 《黃帝內經太素》에 依據하여 補入하면 그 내용은 알아 볼 수 있다. 馬<sup>5)</sup>는 “醫者의 左, 右手로 患者의 小腿部의 서로 다른 부위의 動脈을 동시에 눌러서 脈象을 비교하는 方法이다” 하였고, 魏<sup>7)</sup>는 “醫者의 左手를 患者의 內踝 上方 五寸部位에 두고, 醫者의 右手로 患者의 內踝上方의 動脈을 叩彈하여 醫者의 左手에 脈氣의 搏動을 觸知하는 方法이다” 하였고, 이와 같은 《脈法》의 脈診法을 王<sup>13)</sup>은 彈蹠診法으로 命名하였다.

論者는 彈蹠診法은 《脈法》의 刺絡療法 및 癰腫의 治療의 條文 뒤에 記載되어 있고, 《素問·三部九候論》의 三部九候診을 引用한 《素問》의 諸篇의

治療法은 刺絡療法이며 血管의 彈力度가 떨어지면 大量出現의 危險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彈蹠診法을 行한 醫家들은 血管의 彈力度를 診斷하여 生死鑑別 및 刺絡療法의 安全度를 살피는 方法으로 料된다. 한편 《脈法》에서의 相脈之道을 手足의 內踝 部位에 하여 在上과 在下的 區別로 보면 모두 같은 動脈(頸後動脈)에 屬하고 단지 心端으로부터 遠近의 差異이며 患者 체에 脈象의 異는 같다<sup>5)</sup>. 이 脈象의 差異를 脈診은 病理結果로 起因된 人體機能失調로 認識하여 疾病의 有無를 診察하는 것이 目的이다. 《脈法》의 ‘相脈’은 《內經》時代의 診脈法과 比較하여 보면 渾朴한 先秦時期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脈法》의 “他脈盈, 此獨虛, 則主病. 他脈滑, 他獨澹, 則主病. 他脈靜, 此獨動, 則主病”의 條文은 患者의 脈象을 비교한 일종의 診脈方法이며, 특히 《脈法》과 淵源關係가 있는 《素問·三部九候論》의 比較 脈診法인 三部九候論과 比較하여 보면 《脈法》의 比較 脈診法의 意味를 明確히 알 수 있다.

《素問·三部九候論<sup>8)</sup>》에서는 먼저 三部九候를 살피 上下 左右의 部位의 脈搏의 遲數, 脈體의 大小 및 脈의 流動동의 情況이 一致하면 疾病이 없고, 九候의 變動 數 및 上下 左右의 不調에 따라 疾病의 輕重을 區分하였고, 반드시 어느 經脈에 疾病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小, 大, 疾, 遲, 熱, 寒의 病脈을 살폈다. 이를 근거로 보면 《脈法》의 比較 脈診法은 《陰陽十一脈灸經》의 ‘是僮則病’의 各 經脈의 動脈診斷法을 살피 어느 經脈에 疾病이 있는지 먼저 살핀 후에 盈, 虛, 滑, 澹, 動, 靜의 脈象을 살피 脈象을 區分하였고, 《素問·大奇論》 《素問·邪氣藏府病形》의 大, 小, 緩, 急, 滑, 澹의 六脈은 《脈法》에서 淵源을 찾을 수 있으며, 《脈法》의 比較脈診法과 《素問·三部九候論》의 三部九候診의 方法은 一致한다.

《脈法》의 比較脈診의 知識이 蓄積되어 十二經

脈의 各各의 動脈處의 脉象에 따른 症狀을 《素問·大奇論》에는 心脈, 肝脈, 腎脈, 肺脈, 脾脈의 大, 小, 緩, 急, 活, 澁, 結의 맥상에 따른 各種病症을 詳細히 論述하고 있고, 《素問·邪氣藏府病形》에 五臟脈의 急甚, 急緩, 緩甚, 微緩, 大甚, 微大, 小甚, 微小, 滑甚, 微滑, 澁甚, 微澁등의 各種의 症狀이 詳細히 描寫되어 있다.<sup>13)</sup>

沈<sup>15)</sup>은 “《靈樞》의 緩急大小滑澁의 六脈은 病變을 定하는 脈의 綱領이며, 《素問》의 小大滑澁浮沈, 《難經》의 浮沈長短滑澁 및 《傷寒論》의 弦緊浮沈滑澁의 六脈은 健康의 殘賊으로 認識되고 疾病을 診斷하는 脈의 總綱이다.” 하였고, 滑<sup>15)</sup>은 “脈의 提綱은 浮沈遲數滑澁의 六脈이며 表裏陰陽寒熱虛實과 風寒燥濕臟腑氣血의 病을 診斷할 수 있다.” 하였고, 肖<sup>16)</sup>는 “浮沈遲數滑澁의 六脈을 脈의 提綱으로 보는 것은 簡略하지만 陰陽乘伏, 至數, 四時脈, 五行의 生剋, 胃氣의 有無 등 脈診의 모든 것을 담기는 不足하다” 하였다.

셋째 《脈法》 “夫脈固有動者, 肝之少陰, 臂之泰陰, 少陰, 是主動, 疾則病. 此所以論有過之脉也, 其余謹視當脉之過” 에서 “夫脈固有動者” 의 文句는 十一脈에는 各 經脈을 診斷하는 動脈의 診斷하는 部位가 있으며 足少陰의 太谿部位, 手少陰의 神門部位 및 手太陰의 經渠部位의 動脈處하는 恒常 搏動하는 部位로서 平時보다 빠르게 搏動하면 疾病으로 認識하였다.

此 文句에서 足少陰, 臂太陰, 臂少陰의 三脈 중 足少陰이 가장 먼저 言及되어 있고 《足臂<sup>11)</sup>》 “足少陰脉, 出內踝裏中” 하여 足少陰은 內踝下의 陷谷處에서 起始하고, 《脈法》의 踝部彈診 등으로 推論하면 足少陰의 太谿部位의 動脈을 中心으로 《陰陽》의 “是僮則病” 을 比較診斷하였을 것으로 類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三脈 모두를 基準 診脈處로 利用하여 他 經脈과의 比較脈診을 하였다는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다고 思料된다.

그리고 《脈法》의 診脈法과 그 후의 《內經》, 《難經》, 《傷寒論》 등의 診脈法은 몇 개의 현저한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診脈의 目的과 方法에 있어 《脈法》에서는 脉象이 疾病의 是非의 判斷이 되며, 脉象의 구체적인 病症을 확정하는 것은 重要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診脈한 部位와 方法에서 《脈法》에서는 踝部 上方에 있는 動脈의 두 개 位置點으로 두 손으로 맥을 짚어 對比하면서 側驗하는 方法이며, 《內經》에서는 寸口診脈法, 三部九候診脈法 및 寸口人迎脈 등에서는 比較 診脈法을 提示하고 있으며, 《傷寒論》에서도 進一步한 寸口脈과 跗陽脈을 比較하는 診脈法을 提示하고 있다. 셋째 脉象의 性質이나 疾病과의 關係를 理解하는 方面에 있어 《脈法》의 診脈法은 三條의 六種의 脉象을 提示하고 있다. 즉 盈과 虛, 滑과 澁, 靜과 動이며 서로 대응되는 脉象의 主要點은 正常人과 病人과의 變化를 觀察하여 動脈搏動의 強度(力量), 流暢性과 規則性을 對比하는 것이다.

그리고 《脈法》에서 脉象의 異常特徵과 具體의 인 病症과의 結合이 없다. 《脈法》에서 提示한 盈, 虛, 滑, 澁의 四字는 《內經》 등에 記載된 病脈性質 즉 實脈, 虛脈, 滑脈, 澁脈보다는 不完全하며 ‘動’ 字는 《素問·平人氣象論》, 《靈樞·論疾診尺》의 生理的 妊娠脈의 動脈과 다르고, 《脈經》의 動脈 (“動脈見於關上 無頭尾, ……”)과도 다르며, ‘靜’ 字는 그 脉象이 論述한 醫書 中에는 보이지 않는다.

## 2) 《脈法》과 《素問·三部九候論》의 延變關係

《脈法》 “相脉之道, 左手上去踝五寸而按之, 右手直踝而探之” 의 條文의 脈診의 部位와 方法은 文字가 缺損되어 明確한 意味를 把握할 수 없다. 그러나 後世에 出土된 傳本系統이 다른 《素問》, 《黃帝內經太素》, 《鍼灸甲乙經》, 敦煌에서 出土된 《內經》의 殘文을 包括하여 文字를 判別하고 相互間에 약간의

文字를 出入하고 《黃帝內經太素》에 依據하여 補入하면 그 내용은 알아 볼 수 있다.

《脈法》의 方法과 같은 古代에 流行한 遍診脈法은 《素問·三部九候論》에서만 踝部上方의 診察法의 逸文이 보이며, 《脈法》의 踝部上方의 診斷部位와 方法은 基本的으로 같고 서로 矯正하고 補充할 수 있으나 《脈法》의 條文으로는 明確한 理解가 어렵다. 《脈法》의 此 條文과 《素問·三部九候論》“以左手足上去踝五寸按之, 右手當踝而彈之, 其應過五寸以上, 蠕蠕然者不病……彈之不應者死.”의 文句를 比較하면 踝上部 遍診脈診法은 단지 疾病의 有無 및 生死를 判斷하는 方法으로 생각되며, 馬<sup>5)</sup>는 踝部上方의 脈을 찾는 脈診法은 이미 오래 전에 消滅된 醫學遺産을 發掘하여 貴重한 原始資料를 提供하고 있으며, 王<sup>9)</sup>은 “《素問·三部九候論》의 脈診法을 “彈踝診法”으로 命名하고 敦煌 出土의 《醫卷》과 比較하여 구체적 操作 方法 및 意義를 說明하고, 脈診의 方法으로 按診 切診 외에 彈診을 包含할 수 있다.” 하였다.

또 《脈法》의 “夫脈固有動者, 軒之少陰, 臂之泰陰, 少陰”의 條文은 人體體表에 動脈이 搏動하여 跳을 수 있는 經脈名稱과 診斷學上 應用을 提示하는 세계의 經脈은 足少陰脈 手太陰脈과 手少陰脈이다. 《靈樞·動脈》“經脈十二, 而手太陰, 足少陰, 陽明獨動不休, 何也”하였고, 《素問·三部九候篇》에서도 記載되어 있으며 脈診에 應用된 體表에 動脈이 搏動하는 곳은 아홉 군데이므로 “九候”라고 부른다. 즉 “上部天 兩額之動脈, 上部地 兩脇之動脈, 上部人 耳前之動脈, 中部天 手太陰也, 中部地 手陽明也, 中部人 手少陰也, 下部天 足厥陰也, 下部地 足少陰也, 下部人 足太陰也”으로 볼 수 있다. “九候”의 經脈名稱은 《脈法》의 三個脈을 除外하고 새롭게 六個의 脈名을 더했다.

그러나 《脈法》의 三個의 動脈은 論할 것도 없이 《素問·三部九候論》의 9개 動脈에서도 모두 經脈

의 名稱을 提示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具體的인 部位도 記載하지 않았다.

## 6. 治病의 先後原則

《脈法》의 “治病之法 ; 復先發者而治之. 數脈俱發病, 則擇其甚者, 而先治之”의 條文은 乙本에만 있으며, 論述 要點은 治病의 先後를 가리는 원칙이다. 즉 ① 먼저 나타난 症狀을 먼저 治療하고 ② 發病後에는 危重한 症狀을 먼저 치료하는 先後治療에 관한 醫療思想과 原則은 《內經》에서 말한 것과 같으며 《內經》에서 많은 부분에서 改進되고 擴充되고 完全化되었고 先後治療의 要點은 四種類로 要點할 수 있다.

첫째, 發病의 有餘, 不及의 차이가 있어 治療先後를 確定하므로 《素問·標本病傳論》《靈樞·病論》“病發於有餘 本而標之 先治其本 後治其表 病發而不足 表而本之 先治其表 後治其本”하였다.

둘째, 疾病의 內, 外와 陰陽의 差異가 있어 治療의 先後를 確定하므로 《靈樞·五色》“病生於內者 先治其陰 後治其陽 反者益甚. 病生於陽者 先治其外 後治其陽 反者益甚”하였고, 《靈樞·終始》“病先起於陰者 先治其陰 以後治其陽. 病先起於陽者 先治其陽 以後治其陰”하였다.

셋째, 疾病의 陰陽虛實의 差異가 있어 治療先後를 確定하므로 《靈樞·終始》“陰盛而陽虛 先補其陽 後瀉其陰而和之. 陰虛而陽盛 先補其陰 後瀉其陽而和之”하였다.

넷째, 四時季節에 標本의 差異가 있어 治療先後를 確定하므로 《靈樞·師傳》“春夏先治其標 後治其本. 秋冬先治其本 後治其標”하였다.

以上은 《脈法》에는 病의 標本 陰陽 內外 虛實과 季節要因을 넓게 判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脈法》에서 제시한 치료 원칙은 모두 先秦時代의 素朴한 初期色彩를 지니고 있다.

## IV. 결론

馬王堆 出土 醫書 中 《足臂》 《陰陽》의 經脈病候의 診斷과 治療方法과 聯關이 있는 《脈法》에 關하여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脈法》은 “利下害上”과 “從暖去清”의 氣의 作用의 法則을 提示하여 日常生活과 醫學實薦의 理論으로 歸納하였다.

2. “氣”의 傳導經路인 經脈에 依據하여 導氣理論을 근거로 灸法 砭法을 利用하여 各 經脈의 病候를 治療하는 “導脈”, 癰腫이 膿을 形成했을 때에 砭石을 이용하여 血管(脈)을 切開하여 膿血을 除去하는 治療方法을 說明하는 “啓脈”의 理論과 方法을 提示하였다.

3. 《素問·三部九候論》에 淵源이 있는 踝部彈診法 및 先秦時代의 古代 比較脈診法인 “相脈”의 方法 및 疾病治療의 先後를 區分原則 등의 理論을 提示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脈法》은 《內經》의 祖本이 되며 《脈法》에서 由來한 比較脈診法 및 脈象의 延變을 살펴보면 經脈病候의 治療方法인 針灸療法와 脈診의 淵源을 理解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V. 참고문헌

1. 王雪胎, 中國針灸叢萃,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1-25.
2. 周一謀, 馬王堆醫學文化, 上海:文匯出版社, 1994:1-13. 35-47.
3. 金南一, 印昌植 공역, 고대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法仁文化社, 2000:54-55.
4. 嚴建民, 中國醫學起源新論,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9:122, 137-145. 182-185.
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274-320. 294.
6.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42-45.
7. 魏啓鵬, 胡翔驛, 馬王堆漢墓醫書考釋, 成都:成都出版社, 1992:36-40.
8.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5:1-575.
9. 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286-302. 292-294.
1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大成出版社, 1985:183-192.
11. 이정훈, 윤종화,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15(1):181-200.
12. 이정훈, 윤종화, 馬王堆 出土 醫書 中 陰陽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9;16(2):139-179.
13.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北京出版社, 2000:1328-1329.
14. 彭堅, 帛書《脈法·相脈之道》初探,中華醫史雜誌, 1993;23(2):102-105.
15. 沈時譽, 醫衡, 上海:上海書店出版, 1985:卷一 11.
16. 肖京, 軒岐救正論,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83:卷一 2.